

# 최동원부터 성소수자 부모 이야기까지 진솔한 삶의 이야기 다양한 다큐를 만나다

### 무쇠팔 야구선수 이야기 '1984 최동원' 김귀정 열사 어머니 삶 '왕십리 김중분' '그림자 꽃' 등 관객과의 대화도

야구선수 최동원, 민주투사 고(故) 김귀정의 어머니 김중분, 성소수자 아이를 둔 엄마 등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가 관객과 만난다.

먼저 영화 '1984 최동원'은 무쇠팔 최동원 10주기 첫 번째 다큐멘터리다. 롯데 자이언츠 소속 최동원이 가을의 기적이라 불리는 1984년 한국시리즈에서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우승을 이끌었던 열혈간의 이야기를 담았다. 야구 선수 출신이자 최동원 선수의 팬이었던 조은성 감독이 10년 전부터 기획해 실제 촬영은 4년 전 시작했다. 영화는 그의 영구 결번 등 번호 11번에 맞춰 오는 11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한다.

노태우 정권 당시 백골단 강경진압에 목숨을 잃은 고(故) 김귀정 열사의 어머니이자 팔손에도 노점을 하는 김중분 씨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왕십리 김중분'도 11일 만날 수 있다.

작품은 '나쁜 나라' 김진일 감독의 6번째 장편 다큐멘터리로 김 씨의 일상이 고스란히 담겼다. 김 씨는 왕십리역 11번 출구 터줏대감이다. 30년 전 길 위에서 딸을 잃었지만, 더 많은 자식들을 얻었다. 중분 씨는 딸 잃은 길 위에서 옥수수를 삶고, 가래떡을 굽고, 깻잎을 깬다. 영화에는 그동안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김 열사의 자세한 이야기도 담겼다. 김 열사의 친구들과 언니, 남동생이 인터뷰를 통해 그때의 기억을 하나씩 풀어놓는다.

17일 개봉하는 '너에게 가는 길'은 '성소수자 부모 모임' 회원들의 활동 모습을 담은 장편 다큐멘터리다. 성적소수문화인



'1984 최동원'

권연대 연분홍치마의 10번째 작품이자 '레즈비언 정치도전기', '종로의 기적' 등에 이은 4번째 커밍아웃 시리즈다. 연분홍치마의 활동가인 변규리 감독은 성소수자 당사자와 그들의

부모를 4년간 밀착취재해 영화를 완성했다. 영화에는 각각 '나비', '비비안'이라는 활동명을 가진 두 어머니를 비롯해 여성에서 남성으로 법적 성별 정정을 원하는 트랜스젠더 한결씨, 21살에 커밍아웃을 하고 동성 연인을 만나고 있는 예준씨가 등장해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 경쟁심사위원 특별언급 및 다큐멘터리상을 수상했다.

지난달 개봉해 잔잔한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들은 관객과의 대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관람객을 만난다.

'그림자꽃'은 10년간 남한에 갇혀있는 평양시민 김련희 씨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 2011년 의사 남편과 딸을 둔 평양의 가정주부 김 씨는 간 치료를 위해 중국의 친척집에 갔다가 브로커에게 속아 한국에 오게 된다. 대한민국 입국 직후 북한 송환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고 보호관찰 대상자가 됐다. 14일 오후 4시 광주극장에서는 이승준 감독, 김련희 씨와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올림의 탄생'은 이정준 감독의 장편 데뷔작으로 악기장 임선빈(경기무형문화재 30호(북매우기))과 그 전수자 임동국의 북매우기 작업을 담은 다큐멘터리다. 올림은 그 삶의 궤적과 올림의 탄생 현장, 사라져가는 전통문화 등의 주제를 다룬다. 오는 14일 오후 1시에는 영화 상영 후 이정준 감독, 진모영 감독과의 대화 시간이 펼쳐진다.

'보는 것을 사랑한다'는 한국 최초 극장인 애관극장의 어제와 오늘을 역사 자료와 관련된 100여명의 인터뷰로 기록한 다큐영화다. 제목은 애관(愛館)이라는 명칭에서 '집'과 '관'을 '불관(不觀)자로 바꿔 따왔다. 윤기형 감독이 6년여의 시간동안 제작한 이 작품은 사진·신문 등 역사 자료를 바탕으로 배우 최불암부터 박정자까지, 지역사 연구자들부터 시민들까지 애관극장을 추억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담아냈다. 오는 20일 오후 3시 광주극장에서 관객과의 대화시간이 열린다.

/전은재 기자 ej621@kwangju.co.kr

## 보물 지정기준 60년만에 바뀐다 지정대상도 4종으로 간소화



보물 '흥인지문' (동대문)

〈문화재청 제공〉

그동안 모호하게 인식돼 온 보물의 지정기준이 60년 만에 바뀐다.

문화재청은 포괄적·추상적으로 표현됐던 지정 기준을 바꾸고 보물 유형을 새롭게 분류한 문화재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 공포해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지난 1962년 1월 제정됐다. 당시 보물 지정 기준은 '역사·예술·학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상적으로 표현돼 있어 평가 요소가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시행령 발표에 따르면 '역사적 가치'는 시대성, 역사적 인물 및 사건 관련성, 문화사적 기여도 등에 초점을 맞췄다. '예술적 가치'는 인류 또는 우리나라의 미적 가치 구현, 조형성, 독창성 등을, '학술적 가치'는 작가 또는 유파의 대표성, 특이성, 명확성, 완전성, 연구기여도 등을 중요 평가 기준으로 정했다.

보물 지정대상도 6종에서 4종으로 간소화하고 용어 역시 일관성 있게 정리했다. 개정 전 '건조물'은 개정 후 건축문화재(목조·석조건축물)로 바뀐다. '전적·서적·문서'는 기록문화재(전적, 고문서 등)로, '회화·조각, 공예품, 고고자료'는 미술문화재(회화, 서예, 조각, 공예품 등)로 간소화됐다. 또한 '무구(武具)'는 고학문화재(과학기기 등)로 정리됐다.

이에 따라 4가지 문화재 유형 중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를 하나 이상 충족하는 문화유산을 보물로 지정하게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광주시민연극제 13일까지 빛고을국악전수관서 열려

### 광주·서울 등 전국 8개팀 참가

올해로 7회째를 맞는 광주시민연극제가 회를 거듭할수록 작품과 공연 수준이 높아지면서 시민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있다.

광주시민연극제 조직위원회(위원장 정인서)가 마련한 이번 연극제는 빛고을 국악전수관 공연장에서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열리고 있다. 광주 5개팀, 나주 1개팀, 서울 1개팀, 경기 광명 1개팀 등 모두 8개팀이 참여했다.

시민연극제는 시민중심의 연극제로 진행되면서 아마추어 극단들이 창단되기도 하고 작품마다 재미있는 볼거리와 짜임새 있는 공연으로 호응을 받았다.

계막작은 광주 극단 정거장이 제3회 광주시 창작희곡 공모전 우수상 수상작인 '시작'을 무대에 올렸다. 말바우시장 상인들의 좌충우돌 시(詩) 쓰는 이야기를 다뤘다.

9일은 극단 행복드림의 '날아보자, 더 늦기 전에', 10일 극단 화사한 마을극단의 'one fine day', 12일 극단 우연 '사랑, 소묘', 13일 극단 프로젝트 도담도담 '그 길에 묻다'가 펼쳐진다.



극단 인연의 '3 about 3'

특히 폐막작인 '그 길에 묻다'는 지난해 창작희곡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연극제는 광주 서구(정장 서대석)가 후원하고 광주 서구문화원이 주최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13일 어린이 문화예술교육포럼 ACC '디지털 가상공간과...'

메타버스와 교육의 미래를 고찰해 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직무대리 이용신)과 아시아문화원(ACI·원장 이기표)은 '디지털 가상공간과 문화예술교육'을 주제로 한 어린이 문화예술교육포럼(포럼)을 오는 13일 오후 2시 개최한다. 포럼은 ACC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진행된다. 포럼은 먼저 김상균 강원대 교수가 '디지털 지구, 메타버스와 미래교육'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한다.

이어 박연정 호남대 교수가 '메타버스의 교육적 활용 방안'의 다양한 사례를 발표하며 최원석 EBS 부장은 국내 최초인 메타버스 전시(보이스:7개의 기호)를 중심으로 '온라인 전시 플랫폼으로서 메타버스의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가상문화예술체험을 토대로 한 사례도 발표된다. 소경진 놀플러스 대표는 전통과 혁신이 만난 '신비한 동물시계'의 사례를, 교육기술 새싹기업 임세라 대표는 '메타버스 플랫폼 EPICA'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참가 희망자는 사전 신청을 받는다. 문의 062-601-4719.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대학생 뮤지컬 '유니-브로드웨이' 최종작품 '청춘일기' 12일 광주 공연

KT&G 상상유니브 전남 운영사무국(사무국장 원장희)은 대학생 뮤지컬 프로젝트 '유니-브로드웨이'의 최종작품인 '청춘일기'를 오는 12일 오후 7시, 13일 오후 4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공연한다.

'유니-브로드웨이'는 공연과 무대에 대한 꿈을 꾸는 대학생들을 선발해, 뮤지컬 배우로의 성장을 돕는 대학생 뮤지컬 지원 프로젝트다. KT&G 상상유니브 전남 운영사무국의 지역대표 프로그램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뮤지컬단 '다락'과 함께 대학생에게 문화, 예술 교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이어오고 있다. 지난 5년간 그리스, 맘마미아, 아이다 등 총 5편의 작품을 무대에 올렸으며, 올해는 대학생 사연 공모를 통해 시나리오화한 창작뮤지컬 '청춘일기'를 선보인다.

'청춘일기'는 연애, 우정, 군대 등 현시대 청춘의 감성과 고민을 유니버스 형식으로 담은 이야기로, 일상에서 겪는 고민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20대의 모습을 그려냈다.

12일 공연은 온라인으로 동시 송출돼 누구나 관람이 가능하다. 무료관람이며, 상상유니브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전은재 기자 ej621@kwangju.co.kr

"타자들을 향한 따스한 말건넬의 아득한 순간"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장막'을 자신만의 언어로 승화

진혜진 시인 첫 시집

# 포도에서 만납시다

### 추천사

"진혜진의 첫 시집은 '사랑'의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사랑'을 상상하고 실천하고 꿈으로 각인해가는 불가항력의 과정을 담은 격정적 고백록이다. 그 세계는 때때로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악몽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시인은 그 장막을 뚫고 자신만의 시적 진실을 하염없이 노래해간다."

- 유성호 문학평론가·현양대 국문과 교수

진혜진 시인 프로필 | 2016년 경남신문,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산맥 등단 | 시집 '포도에서 만납시다' | 202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수혜 | 제11회 시산맥작품상 수상 | 도서출판 상상인 대표